



슈매장 외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통유리로 처리했다. 간판에서부터 미국 스타일이 느껴지는 매장이다.

엠파이어 베이글 1호점 오픈

전통적인 미국 스타일 ... 각 가정으로 배달까지

지난 7월 말 용산구 이촌동에 엠파이어 베이글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엠파이어 베이글(대표 김우경)은 그동안 압구정동 현대백화점과 카페 등지에 베이글을 납품하던 업체로 독립된 점포를 오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은 총 13평으로 작은 규모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매장은 엠파이어 베이글이 미국 뉴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JK 베이커리라는 베이글 전문매장을 그대로 본 따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미국 스타일을 표방하고 있다. 이곳은 다른 제과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앙매대나 벽쪽의 진열대 대신 쇼케이스와 그 옆쪽의 진열대만으로 모든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베이글 전문매장답게 베이글 6종류와 머핀 4종류, 치즈케이크, 데니쉬 2종류 그리고 베이글 샌드위치로 품목수를 제한하는 한편 음료와 샐러드, 각종 소스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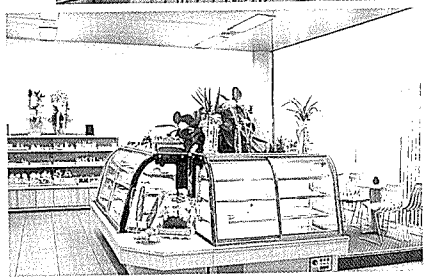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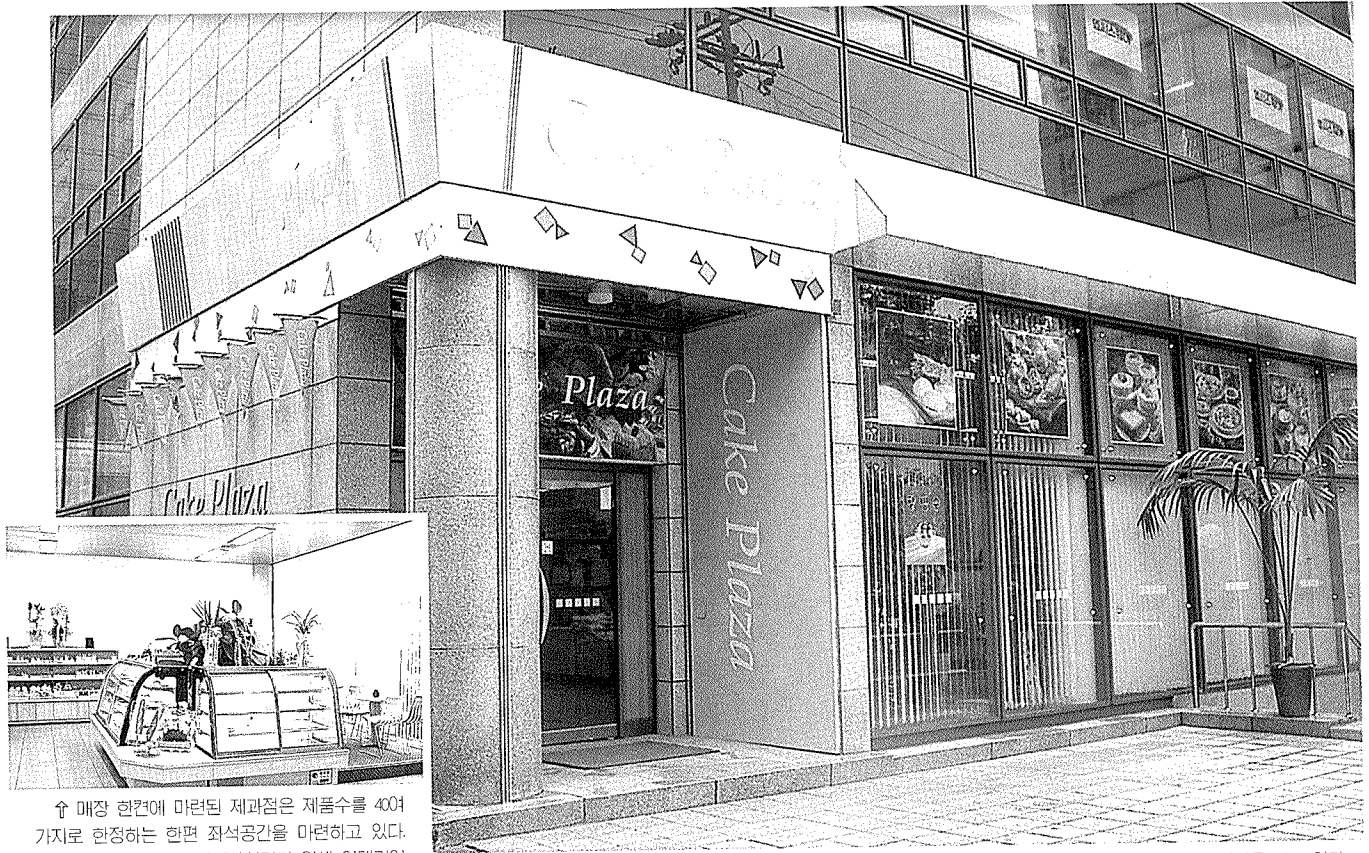
이곳은 배후에 5,5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데 주민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내국인이어서 특별한 홍보 없이도 베이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9월부터 4,5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원할 경우 가정까지 직접 배달도 해줄 계획이다.

한편 엠파이어 베이글은 올해 안에 생활수준이 높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에 2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을 베이글 등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이곳은 중앙매대나 벽쪽에 진열대를 설치하는 대신 쇼케이스와 그 옆쪽의 진열대만으로 모든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매장 입구쪽으로 바 스타일의 좌석 공간을 마련해 간단하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 매장 한켠에 마련된 제과점은 제품수를 40여 가지로 한정하는 한편 좌석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9월부터는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테리어를 부분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매장 외관. 대리석과 노란색 톤으로 절제된 컬러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다.

유임산업, 케이크프라자 1호점 오픈

각종 원부재료에서 제과점까지 한곳에 ... 제품 원가도 공개할 예정

지난 7월말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부근에 케이크프라자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케이크프라자는 총 105명 규모로 제과 원부재료 및 소도구를 판매하는 재료상과 제과점을 동시에 갖춘 복합점포다. 제과점과 재료상이 결합한 형태의 복합점포는 이곳이 처음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케이크 & 파티'라는 브랜드로 원부재료 및 소도구를 취급해 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베이커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제과점을 선보인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접목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각종 원부재료 및 소도구는 물론 각종 제과관련 장비와 제품의 실연에 이르기까지 제과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백화점 형태의 매장이다.

이곳 제과점은 제품수를 식빵이나 바게트 등 40여 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제품의 종류를 바꿔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는 한편 오피스가라는 점을 감안해 파스타나 피자 등 간단한 식사 메뉴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현재 매장내 좌석공간을 확장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이곳은 공장을 완전 오픈하고 매장 한켠에 상설 실연코너를 마련해 제품의 제조과정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는 모든 제품의 재료와 원가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이크프라자의 점포확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임산업의 김영철 대표는 "1년 정도 이곳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살핀 후 점포 확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

<글/김경옥>



↑ 각종 원부재료 및 소도구를 판매하는 코너. 마치 쇼핑센터에 온 듯한 느낌이다.

⇒ 실연코너 및 공장 고객들에게 공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